

이제 한국도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그들의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에 나타난 외국인(특히 가나 사람/나그네)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떤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배려했는지를 살펴,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본정신으로 삼고자 한다.

---

## 구약의 외국인 복지

---

이 태훈 | 국제신대

### 1. 들어가는 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내 주민등록 인구(4913만여 명)의 2%인 100만 25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도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sup>1)</sup> 이런 가운데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조약과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심사한 뒤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이 대한민국에게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개선이 필

---

1) 동아일보 2007. 8. 24에 따르면,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44%인 44만 1334명(중국동포 26만 6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1만 7938명, 베트남인 6만 4464명, 필리핀인 5만 264명, 태국인 4만 2792명 순이다. 그리고 단기 및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장기 체류 외국인(사증을 소지하고 91일 이상 국내 체류)은 72만 4967명이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포함)는 40만 4051명(56%), 결혼이민자는 10만 4749명(14%), 외국인 유학생은 4만 7479명(7%)이다.

요한 나라라고 인권개선 권유를 내린 것은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더욱 돌아보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구약에서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고, 또 구약은 외국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삼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외국인에 대해 가져야 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 구약에 나오는 외국인

구약은 크게 이스라엘에 정착할 의향이 없이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 외국인과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원하는 외국인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sup>2)</sup> 구약은 전자를 노크리로<sup>3)</sup> 후자를 게르로<sup>4)</sup> 부른다. 노크리가 “어떤 고장에 정착해서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살다가 돌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임에 비해서, 게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때문에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이주해 정착하게 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sup>5)</sup>

노크리가 이스라엘의 사회나 문화에 동화하려는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을 의미한다면, 반면에 게르는 신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식 시민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관습에 동화되어 정착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sup>6)</sup> 종교적으로도 노크리는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지만, 게르는 여호와 종교를 따라 이스라엘의 일원이

2) 요세푸스도 유대법이 우연히 유대에 머물게 된 외국인과 유대인의 생활관습을 따르려는 외국인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말한다. 참조 Josephus, *Contra Apionem* 2, 210쪽.

3) 구약에서 노크리는 45번 사용되는데, 같은 의미로 벤 네카르(בְּנֵי-נֶכָר)가 36번 벤 네카르의 복수형인 베네 네카르(בְּנֵי-נֶכָר)는 19번 사용된다. 참조 B. Lang, “נֶכָר,” ThWAT V, 454-462쪽, 특히 455쪽. 노크리와 비슷한 말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사람이란 의미로 자르(זָר)가 있다. 참조 L. A. Snijders, “זָר/זָרָה,” ThWAT II (1977), 556-564쪽; R. Martin-Achard, “נֶכָר,” ThHAT I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4), 66-68쪽, 특히 67쪽.

4) 구약에서 게르는 92번 사용된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거주하다”는 뜻을 가진 גֵּר is 81번 사용되며, 이외에 “이방인으로서의 거주”라는 의미를 가진 גֵּרִים이라는 말이 11번 사용된다. 참조 D. Kellermann, “גֵּר,” ThWAT I, 979-991쪽, 983쪽.

5) 왕 대일, “나그네: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집(한국신학연구소, 2001년 여름), 101-121쪽, 특히 103쪽.

6) Preuß는 노크리를 외국인(Ausländer) 게르를 이방인(Fremdling)으로 구별한다. 참조 H. D. Preuß,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I*,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92), 316-319쪽.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노크리는 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었다. 왕 대일은 게르에 대해 “순전히 자기가 은신처로 삼은 그 고장 사람들의 돌봄과 배품에 전적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한 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sup>7)</sup>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노크리와 게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구약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 1) 노크리(גֵּר)

### (1) 노크리의 신분

구약에서 노크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노크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이방종교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던 유다 사람을 책망하면서 아울러 예루살렘에 살면서 생선이나 각종 물품을 팔던 두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느 13: 15-17), 아마도 여기서 언급된 두로 사람들이 노크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크리는 이 두로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물건을 수입하여 팔던 상인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노크리는 장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자신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계층은 아니었을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에게 이방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스 10: 2이하). 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스가냐가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을 회개하는데(2절) 에스라는 이들에

7) 왕 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103쪽.

8) 그러나 이스라엘이 노크리를 무조건적으로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들고 먼 나라에서 온 노크리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이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노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더라도 경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왕상 8: 41). 이사야는 종말에 벤 네카르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사 60: 10),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경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사 61: 5). 이같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한 벤 네카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사 56: 6-7) 하나님의 백성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사 56: 3). 구약은 여호와를 섬기려는 노크리에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는다. 이 종록은 특히 제 30이사야가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말한다. 참조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위원회(역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서울: 한빛출판사, 2000), 124-150쪽, 특히 128-129쪽.

게 이방여인과 결별하라고 단호히 명령한다(11절). 이런 조치는 요나단과 아스야등 다른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지만(15절), 에스라는 이방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며 철저하게 대처할 것을 명령한다(16절이하). 이방 종교와 풍습을 따르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여인의 아내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벤 네카르)과도 결별하고 회개해야 했다(느 9: 2).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이방여인을 “이방신의 딸”로 부르는 데(말 2: 11), 이방여인이 이스라엘 남편을 이방신을 섬기도록 미혹하기 때문일 것이다.<sup>9)</sup> 그러나 구약성경이 외국여인과의 결혼을 언제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방여인과의 결혼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유혹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었고(창 41: 45), 모세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다(출 2: 21). 룻기도 외국 여인(רֹוּת)인 룻을 긍정적으로 서술한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적대적인 대접을 감수해야 했지만, 보아스는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고(룻 2: 10-14),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한다(룻 4: 10, 13). 아마도 룻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일 것이다(룻 1: 16).

#### (1) 노크리에 대한 태도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노크리에게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sup>10)</sup>.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한 자들인 게르를 사랑하시고(신 10: 18), 이스라엘 사람도 이들을 삼년마다 소산의 십분의 일을 모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신 14: 29), 노크리에게는 이렇게 배려하라는 말씀이 없다. 노크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손님접대의 관습<sup>11)</sup> 외에 법적으로 특별한 배려를 받는

9) 잠언에 많이 나오는 이방 여인(רִיבָּה) 잠 2: 16; 5: 20; 6: 24; 7: 5이 외국여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불륜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을 가리키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여인이라도 이웃여인과의 부정한 관계는 외국여인과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여인들은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왕상 11: 1; 느 13: 26).

10) B. Lang, “רֹוּת,” 457쪽.

11) 근동에서 손님접대(Gastfreundschaft)의 관습은 일반적인 것이다. 한 동구는 드보를 인용하여 나그네 보호의 의무를 “그 나그네가 먹은 소금이 그의 위장에서 분비될 때까지”, 그리고 시리아의 르발라 종족은 삼일동안 150km의 범위 안에서 보호의 책임을 진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한

사람은 아니었다.<sup>12)</sup>

채권자는 7년마다 이스라엘 채무자에게는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어야 하지만, 노크리는 채무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신 15: 3).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지만, 노크리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신 23: 20). 노크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어떤 혈연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혈연이나 지연에서 오는 어떤 배려나 동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도살하지 않은 부정한 고기, 예를 들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죽거나 자연사하여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주어야 했다(출 22: 31). 반면에 이런 부정한 고기라도 게르에게는 무료로 주어서 먹게 했지만, 노크리에게는 그 고기를 팔았다(신 14: 21). 게르는 생존을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려의 대상이었지만, 노크리는 그런 배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sup>13)</sup>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에 드릴 동물을 벤 네카르에게 사서는 안됐는데(레 22: 25),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합당한 흠 없는 동물을 엄격하게 지켜 판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벤 네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출 12: 43-44).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려면 종도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창 17: 12, 27), 노크리(벤 네카르)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없었고(신 17: 15; 비교. 15: 2),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될 수 없었다(겔 44: 7, 9). 이같이 노크리(벤 네카르)는 사회적, 경제적, 제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엄격히 구별되었다.<sup>14)</sup>

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창세기 해석」 (서울: 도서출판 이마고데이, 2003), 214-235쪽, 특히 224쪽.

12) R.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I, (Freiburg: Herder, 1964), 124쪽.

13) 하우튼은 게르와 노크리 간의 차이는 경제적인 것으로, 게르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노크리는 재력이 있어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크리스티아나 반 하우튼, 「너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니」 (이 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99쪽.

14) 이스라엘이 노크리를 엄격하게 구별한 것은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 때문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의존적인 게르와 달리 노크리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방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게르(גר)

### (1) 게르의 신분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의미했지만,<sup>15)</sup> 점차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프로셀리트(proselyte)를 의미하게 되었다. 종교를 개종한 사람은 쉽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칠십인 역은 게르를 대부분 proselyte로 번역한다.<sup>16)</sup> 필로는 proselyte를 “자기 고장이나 집이나 친척을 떠나서 유대 공동체의 질서 속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필로 시대에 게르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 받아 유대공동체에 동화된 사람을 의미하게 됐다.<sup>17)</sup>

“개역성경은 게르(גר)를 ‘나그네’, ‘객’ 또는 ‘우거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렘 22: 3)과 ‘타국인’ 혹은 ‘외인’(민 19: 10)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현대어 번역은 게르를 ‘나그네’(sojourner)로 가장 많이 번역하는데, 게르를 여행자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sup>18)</sup> 구약에서 게르는 외국인인 노크리(נוכרי)와 이스라엘 국민인 예즈라흐(עזראח)의 중간위치를 차지한다.<sup>19)</sup> 같은 외국인이라도 노크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반면에, 게르는 정착하여 동화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외지에 가서 살았듯이, 게르는 어떤 연고도 없는 다른 곳에 가서 외지인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 중호는 게르를 ‘이주자’, ‘이민자’(immigrant)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한다.<sup>20)</sup>

15)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주인이 된 이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지 못한 경우에 자연히 게르로 살게 되었다. 참조 R. de Vaux, *Lebensordnungen I*, 125쪽.

16) 칠십인역의 게르에 대한 번역에 대해, “하우튼,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223-228쪽”을 참조하라.

17) 왕 대일, “나그네(게르)- 구약신학적 이해,” 102쪽, 각주 2.

18)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화과학논총』 제 23권 1호(계명대, 2004), 512-513쪽.

19) 나 동광은 게르를 현대적 의미의 영주권자로 비유한다. 참조 “나그네 신학의 기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2001. x월), 쪽, 특히 188쪽.

20)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3쪽; 노만 C. 하벨, “평화의 백성: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난 이주이념,” 『신학사상』 113집(2001년 여름), 149-171쪽, 특히 154쪽; F. A. Spin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FS for D. N. Freedman, (Winona Lake/Ind. 1983), 322-335쪽; 하우튼은 게르의 정착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열린 상

게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도 그 사회에서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계층에 속했다.<sup>21)</sup> 게르는 자유인이라는 점에서는 종과 구별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했던 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된다.<sup>22)</sup> 왕 대일은 게르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차별대우도 받지 않았다는 드보의 주장에 반박하며, 신분상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 매우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한다.<sup>23)</sup>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창 12: 10; 20: 1; 21: 23, 34; 창 17: 8; 33: 4), 이삭(창 26: 3; 35: 27; 37: 1), 야곱(창 28: 4; 창 36: 7)과 열두 아들들(창 47: 4, 9) 뿐 아니라 롯(창 19: 9)과 에서(창 36: 7)도 게르였다. 게르였던 야곱은 가축이나 종 등 재산을 소유했고(창 32: 5), 롯은 자신의 집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롯은 사회적으로 재판관과 같이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다(창 19: 9). 모세도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미디안에서 게르로 지냈다(출 2: 22; 18: 3).

게르와 비슷한 의미로 토삽(טָשַׁב 거주자)이 쓰이는데 두 말을 서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게르와 토삽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창 23: 4; 레 25: 23, 35, 47; 민 35: 15). 아마도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 쌍의 단어인 것 같다(시 39: 12; 대상 29: 15). 그리고 토삽은 게르의 동사인 גָּר의 분사로 수식되는 경우가 있는데(레 25: 6, 45, 47) 이것은 게르와 토삽이 동의어라는 것을 보여준다.

토삽은 가난한 품꾼(שָׂכִיר 사키르) 뿐 아니라(출 12: 45; 레 22: 10; 25: 40), 품꾼 외에도 남종, 여종과 함께 언급된다(레 25: 6).<sup>24)</sup> 출 12장 45절은 토삽과 사키르를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외시킨다.

태이기 때문에 “이방인”(alien)으로 번역하는 것이 스피나가 “이주자”(immigrant)로 번역하는 것까지 함축하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주장한다(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21쪽).

21)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게르와 비슷한 배려를 받았다(참조, 신 12: 12; 14: 29; 26: 12).

22) R. de Vaux는 게르를 단지 정치적인 권리만 갖지 못할 뿐, 자유를 소유하고 재산도 가질 수 있었던 신분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가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었다. 참조 R. de Vaux, *Lebensordnungen I*, 125쪽.

23) 왕 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104-105쪽.

24) 이스라엘 사람이 집이 가난해져서 땅을 잃게 되는 경우 품삯을 받고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방인들이 품꾼으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참조, 신 24: 14).

그런데 할례 받은 게르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출 12: 48; 민 9: 14), 아마도 토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토샤은 게르와 거의 동일한 신분이지만, 사회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덜 동화된 사람인 것 같다.<sup>25)</sup> 그리고 토샤은 경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다.<sup>26)</sup> 토샤이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이다(레 22: 10; 25: 6). 따라서 토샤은 “신분상 게르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 (2) 게르의 직업

사울을 죽이고 그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살던 아말렉 게르의 아들이었다(삼하 1: 13). 이로써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확실한 직업인 군인이 되어 가족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삼하 1: 13). 이스라엘에 살던 가나안 게르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주로 하고(신 29: 10), 또 가난한 품꾼으로 일했다(신 24: 14).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아마도 가나안) 게르들에게 석수의 일을 맡겼다(대상 22: 2). 솔로몬도 인구조사에서 153,600명의 게르들을 계수했다. 그중 7만 명은 짐꾼으로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캐는 석수로 (개역은 벌목꾼) 나머지 3,600명은 감독의 직을 맡겼다(대하 2: 17-18).

직업을 가진 게르가 이스라엘에서 재산을 모으기도 한 것 같다. 이스라엘 사람이 게르에게 종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레 25: 47; 신 28: 43). 다윗 시대의 헷 사람인 우리아(삼하 11: 3)나 사울 왕 때 에돔 사람 도액(삼상 21: 8)이 게르로서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된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게르는 낮은 계층의 직업을 가졌지만, 높은 신분을 얻고 재산을 모아서 상류층으로 진입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이스라엘에서 게르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룬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겔 47: 22-23).

25) 하우튼은 토샤을 게르와는 다른 “임시거주민”으로 이해하며, 신분상으로는 오히려 사키르에 가까우나(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153-157쪽), 후에 게르, 토샤, 사키르는 거의 동일어가 되어, 제 사법전에서는 상호교환이 가능한 용어들로 사용된다(160쪽)고 설명한다.

26) K. Elliger, HAT I/4, 293f; D. Kellermann, “גֵּר,” 990쪽.

27)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4쪽.



### (3) 게르의 종교적 권리

게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고(출 12: 19),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도 지킬 수 있었다(출 12: 48-49). 유월절 규례는 게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었다(민 9: 14). 게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대 속죄일에도 참여하고(레 16: 29), 초막절 절기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신 16: 14).<sup>28)</sup>

게르는 여호와를 섬겨 이스라엘의 종교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다(신 29: 10-13; 31: 12). 게르는 안식일에(출 20: 10; 신 5: 13-14), 여호와의 예배에 참여하는 즐거움(신 16: 11; 26: 11)과 율법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신 31: 12). 게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계명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레 17:8; 22:18; 민 15: 14-16, 26, 29, 30). 게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는 게르가 할례를 받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에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29)</sup> 게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언약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신 29: 11-13).

### (4) 게르에 대한 법적 요구

게르도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레 18: 26). 이것은 게르가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게르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고(출 20: 10; 23: 12; 신 5: 14),<sup>30)</sup> 칠칠절(신 16: 10-11)과 초막절(16: 13-14)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게르는 율법을 배워 지킬 의무가(권리도) 있었다(신 31: 12). 게르도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에게 희생을 드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레 17: 7-9).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다

28) 레 23장 42절은 초막절에 참여하라고 명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본토인)만 언급하는데,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특별하게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43절). 그러나 이 구절이 게르를 초막절 참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9) A. van den Born, "Fremde", *Bibellexikon*, (Benziger Verlag 1968), 494쪽.

30) 주인, 아들, 딸, 남중, 여중, 육축, 게르가 다같이 안식일을 지켜 쉬어야 했다. 이것은 게르가 그 집안에서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순서에서 가장 나중에 언급되는 것은 그들의 지위가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준다. 참조 왕 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105쪽.

(레 17: 10, 12, 13). 그리고 피를 빼지 않은 부정한 동물을 먹은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다(레 17: 15-16; 비교. 민 19: 10).

게르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근친과 성적 관계 등 부정한 관계를(레 18: 6-23) 가져서는 안 되었다(26절). 게르가 이방신인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레 20: 2), 이같이 게르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되었다(겔 14: 7).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다(레 22: 25; 민 15: 14-16). 이것은 게르가 “이스라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종교적이나 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1)</sup>

##### (5) 게르가 되는 원인

누구든지 타지에 가서 게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르가 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다. 게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게르로 지냈다.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서 게르로 살고(룻 1: 1), 엘리야도 기근 때 사렙다의 과부에게 게르로 머물렀다(왕상 17: 20). 엘리사는 수넬여인과 가족을 기근에 대비해 비옥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게르로 머물게 하고(왕하 8: 1), 이삭도 기근 때 그랄의 아비멜렉에게서 게르로 머문다(창 26: 3).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게르로 머물게 된 것도 기근 때문이었다(창 47: 4; 비교. 창 12: 10).

기근은 가난을 불러오고 가난은 일거리를 찾아 다른 고장으로 떠나가게 한다. 왕 대일은 게르가 되는 이유를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관찰한다.<sup>32)</sup> 그는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 게르가 생기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너희의 집에 머무는 게르”(출 22: 1; 23: 9, 12)가 바로 이런 범주에 속하는 일꾼이었다. 게르는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이나 노동시장을 찾아가 잉여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한편 기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유로 농촌에서 땅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도시로 찾아가 품꾼(일용노동자)으로 일하기도 했다.

31) 왕 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104쪽.

32) 왕 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106쪽 이하.

이것도 게르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sup>33)</sup>

게르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전쟁은 사람들을 땅이나 집 등 재산을 파괴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게르로 살게 만든다. 모압이 멸망하여 유다와 에돔에 게르로 거하게 되는 것도 전쟁 때문이다(사 16: 4).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등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유다로 넘어와 그들 중에 게르로 살게 되는데, 아사 왕은 그들을 베냐민 지파와 함께 유다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대하 15: 9).

앗수르의 침입으로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 남쪽 유다에 엄청난 난민들이 유입되었다. 이런 피난민이 유다에 게르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sup>34)</sup> 기원전 8세기의 한 세기 동안 예루살렘의 거주 지역이 거의 두 배로 불어났는데, 한 동구는 이것을 북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한 피난민의 대량 유입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참조, 대하 30: 25-26).<sup>35)</sup> 대하 30장 25절은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유다에 거주하는 게르들”을 언급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sup>36)</sup>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의 정복정책이 패망한 나라의 국민들을 집단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더욱 대량 난민이 발생했을 것이다. 왕 대일은 북에서 내려온 난민 외에도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앗수르에 반기를 들었던 까닭에 앗수르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 유다 난민들까지 예루살렘에 몰려들어 급격하게 수가 늘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sup>37)</sup>

### 3. 게르에 대한 배려

33) 한 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221-223쪽.

34) 드보는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혈통이나 문화가 자기들과 같기 때문에 북에서 내려온 게르들을 사회로 받아들이기가 쉬웠고, 이런 경험이 외국에서 온 게르들을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동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Vaux, *Lebensordnungen I*, 126쪽.

35) 한 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220쪽.

36) 한 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220-221쪽; 이 구절은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르들과 유다에 거주하는 (게르들)”로 번역되기도 한다. 왕 대일은 이에 근거해 이 구절이 이스라엘에서 온 난민들을 이미 유다에 살던 게르들과 동일시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참조, 왕 대일 “나그네(게르) -구약신학적 이해,” 111쪽.

37) 왕 대일, “나그네(게르) -구약신학적 이해,” 109-110쪽; 왕 대일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8세기 중엽 7,500명에서 8세기 말에는 25,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말한다. 참조, Magen Broshi, “The Expansion of Jerusalem in the Reigns of Hezekiah and Manasseh,” *IEJ* 24(1974), 23쪽.

## 1) 배려의 원리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과부, 고아와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계층으로 여겨졌다(출 22: 21-22; 23: 9; 신 27: 19; 속 7: 10; 말 3: 5 등; 비교 시 94: 6). 게르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배려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들은 근동에서 전통적인 관습인 손님우대 이상의 배려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게르를 사랑하셨고(신 10: 18; 시 146: 9),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게르를 사랑해야 했다(신 10: 19).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르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낳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취급해야 했다(레 19: 33-34).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에게 온 게르는 학대하지 말고 잘 보살펴야 된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바로 “네 게르”이기 때문이다(신 24: 14; 29: 11; 31: 12; 비교 5: 14; 출 20: 10). 예레미야는 과부와 고아와 함께 게르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렘 7: 5-6; 22: 3), 에스겔도 게르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악행이라고 정의한다(겔 22: 7, 29).

## 2) 경제적 배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이삭을 남기고, 또 포도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서 가난한 게르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레 19: 9-10; 23: 22; 신 24: 19-22).<sup>38)</sup> 그리고 밭의 안식년에 저절로 난 곡식이나 포도열매 등을 종들과 품꾼과 함께 게르에게 주어 먹게 했다(레 25: 5-6). 이것은 가난한 게르들에게 동정하듯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추수하여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배려였다.<sup>39)</sup>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년마다 소산의 십분의 일을 모아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과부, 고아와 함께 게르들로 하여금 먹게 했다(신 14: 28-29; 26: 12). 과부와 고아

38) Albertz는 요시아 종교개혁으로 인해 곤궁에 빠지게 된 지방의 레위인들(Landleviten)을 시작으로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구제조치들이 시행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조치는 땅을 가진 주인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지 않고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참조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346쪽.

39)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8-9쪽.

와 함께 게르는 이스라엘이 돌보아야 하는 복지의 대상이었다.

### 3) 예외적 배려

제대로 피를 빼는 등 제의적으로 올바르게 도살되지 않고 길에서 자연 사하거나 맹수에 찢겨 죽은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는 금했지만 가난한 게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먹게 했다(신 14: 21). 반면에 부정한 고기를 먹은 게르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의식 을 행함으로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할 수 있었다(레 17: 10-16). 정결의식 을 통해 부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은, 원래 부정한 고기는 먹 지 말고 개에게 던져줘야 했지만(출 22: 30), 생존의 싸움을 하는 게르는 먹을 수 있도록 예외적인 길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 4) 법적 배려

게르들은 고아나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해야 했다(신 1: 16; 24: 17; 27: 19). 품꾼으로 일하는 게르의 임금은 당일의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야 한다(신 24: 14-15). 게르는 당일의 품삯이 절실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 문이다. 고대근동의 법에 과부나 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들은 수 없이 나오지만, 이방인을 보호하라는 규정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에게만 독특한 규정이다.<sup>40)</sup> 그리고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는 6 개의 도피성도 이스라엘 사람 뿐 아니라 게르도 위한 것이 었다(민 35: 15; 수 20: 9).

### 5) 배려의 근거

게르를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도 애굽에서 게르였기 때문이다(출 22: 21; 23: 9; 레 19: 34; 신 10: 19; 23: 7; 26: 5; 시 105: 23; 사 52: 4; 비교. 창 15: 13; 대상 16: 19; 행 13: 17;

40) P. Welten, "Zur Frage nach dem Fremden im AT.", Ehrlich, E.L.(Hg.), *Wie gut sind deine Zelte, Jaakow...*, FS für R. Mayer (Gerlingen: Bleicher, 1986), 136쪽, 각주 76; 정 중호는 이스라엘이 게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해서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게르로 살았던 역사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512쪽.

엡 2: 19).<sup>41)</sup>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서 게르로 살던 시절을 상기하며, 자기들과 함께 사는 다른 게르들을 돌봐주어야 했다.<sup>42)</sup>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게르로 살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출 2: 23; 3: 7, 9),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게르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출 22: 23).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사는 게르들을 학대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다.<sup>43)</sup>

#### 4. 외국인에 대한 구약원리의 현대적 적용

##### 1)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이란?

이 종록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로 정식으로 체류하면서 좋은 대접을 받고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온 노동자들로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차별과 굴욕을 감내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sup>44)</sup> 우리는 전자를 구약의 노크리로 후자를 게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크리는 일반적인 배려 외에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의 대상은 아니다.

외국인 중에서 특히 우리의 배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게르와 같은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정치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아 몸을 의탁한 사람들이다.<sup>45)</sup> 경제적 이유로 한국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을 위해 온 외국인 여성들 그리고 탈북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가난한 약자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신 10: 18),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당

41) 이 권고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반 하우튼, 너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니, 62-67쪽”을 참조하라.

42) Albertz는 과거에 게르였던 역사의 회상은 특히 북 이스라엘에서 온 피난민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한다. 참조 Albertz, *Religionsgeschichte*, 289-290쪽.

43) R.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86쪽.

44)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124쪽.

45) 현대에 강제적인 이주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에 대해, 참조 W.C.C.(역음), “A Moment to Choose: Risking to be with uprooted People,” (이 미화 옮김),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24-101쪽을 참조하라.

연히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인 것이다.

## 2) 우리의 게르 경험과 게르에 대한 배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온 게르를 잘 보살피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도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게르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한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게르로 살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서 불법체류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60년대에 서독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60년대 중반 한창 전쟁 중일 때 목숨 걸고 베트남에 파견된 근로자들로, 70년대 중동특수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도 남의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며 고생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주노동자로 온 외국인들을 우리 가족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 3) 임금체불 금지 및 일자리 배려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에게 온 게르는 학대하지 말고 자기 가족처럼 대하며(레 19: 33-34), 학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날의 품삯은 바로 그날 주어야 했다(신 24: 14-15). 게르는 아무 연고도 없는 힘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무시와 폭력을 당하기 쉽고, 또 품삯을 바로 주지 않아도 항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떼먹히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과 구타에 시달리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sup>46)</sup>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 철승)는 외국인 노동자 247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1%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30%가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해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7)</sup>

이스라엘 사람이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고 남겨 게르들이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했듯이, 우리도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이 먹을

46) 이주노동자들의 임금과 폭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참조 이 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6(침례신학대학교, 2000.8), 389-438쪽, 특히 410-412쪽을 참조하라.

47) 연합뉴스 2002년 9월 16일; 참조,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125-126쪽.

수 있는 것을 남겨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소위 3D에<sup>48)</sup> 해당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라도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배려의 차원에서 남겨 준다면 그들은 이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금조성

이스라엘에서는 3년마다 소산의 십일조를 모아 게르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신 14: 28-29; 26: 12).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도 있어야겠지만) 우리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제시하기가 어렵지만, 교회의 십일조 중에서 일부를 이 일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생존에 위협을 당할 정도로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5) 자국민과 동등 권리 인정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법과 관습의 규정을 요구받았다(레 18: 26). 종교적인 규정과 율법 준수와 사회적인 관습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법적 요구를 받았다. 똑같은 법적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똑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공적으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외국인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교육, 의료혜택, 보험 등에서 차별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49)</sup>

#### 6) 인도적 배려와 예외적 배려

게르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달리 부정하게 죽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48) 3D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difficult, dirty, dangerous) 일의 약자이다.

49)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시행되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으로, 설 동훈,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기관) 제도개선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근로복지공단 2006), 21-29쪽을 참조하라.



(신 14: 21), 정결의식을 통해 부정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레 17: 10-16). 게르에게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던 것은 생존을 다투는 그들의 상황을 배려한 때문이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 신도림 건설현장 화재에서 11명의 생명을 구했던 4명의 몽골 노동자가 특별체류허가증을 받았다.<sup>50)</sup> 반면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여성 노동자 아무나(38)는 아들 하 영광(7)군, 남편 하산타(34)와 헤어지게 됐다.<sup>51)</sup> 어린 아들을 어머니와 헤어지게 하는 것은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배려해서 탄력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sup>52)</sup>

#### 7) 피난처로서의 교회공간 제공

게르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도피성이 제공되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쫓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사회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교회가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sup>53)</sup>

#### 5. 나가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그 땅에서 게르로 살아왔다(시 39: 12; 119: 19; 대상 29: 15). 베드로도 우리를 나그네(게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벧전 2: 11).<sup>54)</sup> 이같이 사람은 모두 땅위에서 게르의 인생을 사는 존재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만 우리가 이 땅위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

50) 연합뉴스 2007년 4월 18일.

51) 한겨레 2007년 3월 18일.

52) 이에 대해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웅 대표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다고 외치면서도, 그런 조치를 이끌어낸 아무나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제출국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53) 박 천웅의 AFC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노동자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54) A. Obermann, “Fremd im eigenen Land,” Kerygma und Dogma, 51/4(2005), 263-289쪽.

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위에서 게르라는 신분을 인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같이 결국 죽어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은 이 땅에서 모두 게르인 것이다.

## 6. 참고문헌

- 나 동광, “나그네 신학의 기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2001. 4월), 187-209쪽.
- 설 동훈,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기관) 제도개선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근로복지공단 2006).
- 왕 대일, “나그네: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집(한국신학연구소, 2001년 여름), 101-121쪽.
- 이 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6(침례신학대학교, 2000.8), 389-438쪽.
-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위원회(역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124-150쪽.
-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23권 1호(계명대, 2004), 511-525쪽.
- 하벨, 노만 C., “평화의 백성: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난 이주이념,” 「신학사상」 113집(2001년 여름), 149-171쪽.
- 한 동구,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창 16장),” 「구약논단」 13/1(2007.3.31.) 12-30쪽.
- \_\_\_\_\_,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창세기 해석」 (서울: 도서출판 이마고데이, 2003), 214-235쪽.
- 하우튼, 크리스티아나 반, 「너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니」 (이 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 Albertz, 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Born, A. van den, “Fremde”, *Bibellexikon*, (Benziger Verlag, 1968), 494쪽.
- Kellermann, D., “גֵּר,” *ThWAT I*, 979-991쪽.
- Lang, B., “גֵּר,” *ThWAT V*, 454-462쪽.
- Martin-Achard, R., “גֵּר,” *ThHAT I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4), 66-68쪽.
- Obermann, A., “Fremd im eigenen Land(1.Pet.),” *Kerygma und Dogma*, 51/4(2005), 263-289쪽.
- Preuß, H. 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I*,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92).
- Rendtorff, 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 Verlag, 2001).
- Schwienhorst-Schoenberger, L., "... denn Fremde seid ihr gewesen im Lande Ägypten," *BiLi* 63(1990), 108-117쪽.
- Snijders, L. A., "גֵּר/גֵּרִים," *ThWAT* II (1977), 556-564쪽.
- Spina, F. 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FS for D. N. Freedman, (Winona Lake/Ind. 1983), 322-335쪽.
- Vandevelder, F. R., *The Biblical journey of faith: The Road of the sojourner* (Emigration and Immigration in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Vaux, R. de.,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I, (Freiburg: Herder, 1964).
- Welten, P., "Zur Frage nach dem Fremden im A.T.", Ehrlich, E.L.(Hg.), *Wie gut sind deine Zelte, Jaakaw...*, FS für R. Mayer (Gerlingen: Bleicher, 1986), 130-138쪽.

검색어

게르

노크리

외국인

프로셀리트

이주자

할레



---

## Welfare for Aliens in the Old Testament

---

**Tae-Hoon Lee, Th.D.**

Professor, Department of Old Testament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Korea has become a multi-ethnic country, in which over million foreigners are living. Under this circumstances, it might be a shame that Korea has been commanded by CERD(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o overcome the ethnocentric imag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underlying principles(or spirits) in the welfare system for aliens in the Old Testament mainly by analysing the scriptural references to aliens(*ger*) in the Old Testament, so as to draw lessons for our society.

The Old Testament texts introduce two different kinds of aliens: (1) those who live in the land temporarily, (2) those who try to assimilate themselves to the Israelite way of life. The former are called *nokri*, and the latter *ger*. *Nokri* are portrayed more or less negatively on the ground that the Israelites might be wrongly influenced by them. On the other hand, *ger* are described sympathetically, partly because they were willing to follow the Israelite religion and culture, partly because they belonged to the needy class.

*Ger* usually did menial works like wood-chopping and water-carrying (Deut 29: 11), otherwise they worked as hired men(Deut 24: 14).

However *ger* were treated as a part of the Israelite people(Lev 18: 26). They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Feast of Passover(Exod 12: 48-49) and Unleavened Bread(Exod 12: 19) alongside the Israelites. *Ger* were taken care of in many way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regarded as those needed supports as widows and orphans in the Israelite society. For example, at harvest gleaning leftovers were retained for *ger*, and some grapes or olive fruits were left unpicked for them to collect(Lev 19: 9-10; 23: 22; Deut 24: 19-22). *Ger* were allowed to reap what grew itself in the Sabbath year(Lev 25: 5-6).

Although Israelites were not to eat animals improperly slaughtered, the impoverished *ger* were able to take them for food(Deut 14: 21). This could be an exceptional case in which life(or humanity) took precedent over the law. *Ger* were dependent on court justice because they were in vulnerable situation(Deut 1: 16; 24: 17; 27: 19). The Israelites should not hold payment for *ger* after the sunset(Deut 24: 14-15).

The main reason for Israelites to take care of *ger* was because formerly they were *ger* in Egypt as well(Exod 22: 21; 23: 9; Lev 19: 34; Deut 10: 19; 23: 7; Ps 105: 23; Isa 52: 4). Israelites were responsible for helping *ger*, looking back the time when they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ere are various principles in the Israelite treatment of *ger* in the Old Testament. And those principles are to be applied to our present situation because there exist "our *ger*(foreigners)" in various areas of this land.

### Keywords

*ger*  
nokri  
foreigner  
proselyte  
immigrant  
circumcision

